

지방교육재정 집행 최대화 '총력'

전북교육청, 자체 재정집행 비상점검반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나섰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집행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직속기관과 학교 등 모든 교육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공사와 용역 등에서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한도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11~12월 예정된 모든 입찰을 긴급으로 진행, 공고기간을 단축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은 5일, 공개 견적은 3일로 공고기간이 단축된다. 선급금 지급 비율도 50%에서 60%

로 확대하고, 기성금 및 대가지급금 청구 시 지급기일도 단축해 가능한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자체 재정집행 비상점검반을 운영한다. 일단위, 주단위로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오는 '부교육감 주재 재정집행 2차 긴급회의(도교육청 각 실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대상)'를 개최하고, 11~12월 신속한 예산 집

행과 이월액·불용액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재정집행 강화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용수단을 모두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꾀하기 위함"이라며 "모든 기관에서는 교육활동 적기 지원과 이월·불용액 최소화,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 역량 평가로 서기관 승진 대상자 선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역량 평가를 통해 2020년 서기관(4급) 승진대상자 교육행정직 3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전했다.



송국현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기관 승진 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역량 중심의 평가 시스템 구현으로 고품질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서기관(4급) 승진에 역량 평가를 도입했다.



양서연

서기관(4급) 승진 심사는 심사대상자에 대해 역량 평가와 현장평가 등을 실시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 추천을 거쳐 교육감이 최종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황인규

현장평가는 5급 재직 기간 중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들이 심사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리더십 등을 평가하고, 역량평가는 5급 재직 기간 동안 주요 업무실적과 서기관으로서 직무수행 계획서를 토대로 1인당 40분 이내의 심층 면담을 실시한다. 전북교육청은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장평가는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고, 역량평가는 평가위원 전체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가 12일 교내 학생회관에서 '자소서 3시간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다양한 콘텐츠로 취업역량 강화 '톡톡'

군산대 대학일자리센터, 자소서 3시간 마스터 프로그램 운영

군산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는 12일 교내 학생회관에서 '자소서 3시간 마스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21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8회 중 1회만 참여해도 된다. 1회 프로그램에는 재학생 120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을 대상으

로, 대학의 플랫폼을 활용해 취업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콘텐츠를 풍부하게 활용하는 노하우를 습득하여, 학생들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키워드 답변을 통한 경험 분석 ▲빅데이터 기술로 개인경험 기반 자소서 완성 ▲서비스 이용후기 작성 등으로 구성되

었다. 군산대학교는 현재 학생 취업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잡플래닛과의 상담을 통해 플랫폼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의 자소서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2019년 하반기 기업별 채용트렌드를 반영한 입사지원서를 작성함으로써, 목표기업에 대한 직업설계와 취업경쟁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 창업지원단, 내일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창업지원단은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교내 학생회관 앞 새세대 광장을 비롯한 캠퍼스 곳곳에서 2019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 2014년부터 열린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는 지역 내 창업 생태계 및 창업 문화를 조성하고, 창업 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투어 행사는 창업 유관기관과 대학에서 운영 중인 사업단을 비롯해 교내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1학과 17기업으로 창업 활동 중인 13개 팀의 아이템 전시 및 홍보부스, 지역 내 (예비)창업자 플라마켓 부스, 성공CEO 창업 특강, 체험 및 부대행사 부스, 창업 상담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한편, 청년창업 한마당 투어 개최식

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 예정인 가운데 전라북도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최한길 창업지원단장은 "창업에 관심 있는 지역민 또는 창업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창업 행사를 계기로 지역 내 창업기업 인지도 제고 및 창업 기업 간 인프라 확대, 창업 아이템 발굴 등 창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김형년 인천중앙동물약품병원장이 모교인 전북대학교에 200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7년째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

"나눔의 손길 이어지길"

김형년 병원장, 전북대에 17년째 장학금 기부

김형년 인천중앙동물약품병원장(전북대 수의학 67학번)은 모교인 전북대학교에 2003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7년째 발전기금을 기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도 11월 12일 2천만 원을 냈다. 올해까지 누적된 금액은 총 3억 5천만 원에 이른다. 김병원장은 이날 기탁식에서 그동안의 나눔 실천과 모교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김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장학금을 받은 후배들이 훗날 또 다른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원장의 바람은 소박했다. 김형년 원장은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에서 근무한 뒤 1983년부터 지금까지 36년째 인천 '중앙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전북대는 김 원장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기 위해 수의대가 있는 익산 특성화캠퍼스 첨단 강의실을 '김형년홀'로 명명해 예우하고 있다. 김형년 원장은 "내가 받았던 것들을 우리 후학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 삶의 큰 행복"이라며 "모교를 방문할 때마다 학창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가슴이 설레고 짝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병원장은 "김 원장님의 소중한 고귀한 뜻을 잘 받들어 우리 학생들이 세계를 누리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알찬 대학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전북대학교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김동욱 교수,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차차기 회장 당선



전북대학교 김동욱 교수(공대 바이오메디컬공학 학부)는 최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창립 40주년 추계 학술대회 정기총회에서 차차기 학회장에 당선됐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2021년부터 대한의용생체공학회장을 수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수석부회장직을 맡는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는 의료기기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 최대 규모의 학술단체로 6,000여명의 대학, 연구소 및 산업체 회원이 소속돼 있다. 김 교수는 해당학회에서 평의원, 교육이사, 교육위원장, 감사 등을 역임하

며 의료기기가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 교육과정 개발 등 학회발전 선도한 것이 호평을 받아 당선됐다. 한편, 김 교수는 260여 편의 논문을 국내외에서 발표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전문위원, 한국연구재단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한의용생체공학회 공로상,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표창, 교육부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김동욱 교수는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의 국회 통과,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 등 의공학 분야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충실히 활용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대한의용생체공학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